

한화L&C, EVA시트 5만톤 착공

2015년까지 5000억원 투입 ... 터치스크린용 ITO글래스 생산도

한화L&C(대표 김창범)가 충북 음성에 EVA(Ethylene Vinyl Acetate) 시트 및 ITO(산화인듐주석) 글래스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첨단소재 사업 강화에 나섰다.

한화L&C는 9월29일 충북 음성군에서 태양광 모듈에 쓰이는 EVA시트와 터치스크린 핵심소재인 ITO글래스를 생산하는 G-테크 음성공장 기공식을 열고 2015년까지 16만5300㎡의 음성공장에 5000억원을 투입해 ITO글래스 1억셀과 EVA시트 5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.

이에 따라 2015년에는 2조5000억원의 매출과 900여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특히, 협력기업을 함께 입주토록 해 일관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.

한화L&C는 첨단소재 외에도 자동차 경량화 소재,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.

김창범 대표는 기공식에서 “음성공장을 차세대 핵심사업의 생산 및 개발 거점으로 육성해 회사의 미래비전을 달성할 것”이라며 “음성은 중부 내륙의 핵심 공업지역이어서 충북 지역과의 막대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9/29>